



“삶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야”

홍상수의 본격 ‘사랑론’...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삶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뿐이라고 다른 건 다 요식행위야! 사랑이 가장 중요해 난 이제부터 그렇게 살거야”

영수(김주혁)는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소리친다. 과거의 홍상수는, 이런 말을 해대는 남자들을 조소(嘲笑)하거나 냉소(冷笑)했다. 그런데 홍상수는 지금,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영수의 말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홍상수는 영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홍상수가 이해할(이해한 듯) 그 진심의 사랑은 결국 민정(이유영)에게 가 닿는다.

홍상수는 서서히 변해왔지만, 이렇게 도약한 적은 없었다.

그는 인간을 예리하게 벗겨내다가 따뜻하게 지켜보고, 이젠 감싸 안는다.

홍상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게 지금의 홍상수라는 거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홍상수의 본격 ‘사랑론’이다. ‘육희의 영화(2009)’를 시작으로, ‘자유의 언덕(2014)’에서 본격적으로 로맨틱해지기 시작한 그는 이번 작품에서 대놓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요약하자면, 영화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는 척하는 남자(들)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강조하는 여자의 이야기다. 영수와 남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수집한 ‘정보’로 민정의 현재와 미래를 반복해서 규정하고, 민정은 그들이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식의) 술래잡기를 시도한다.

그때 민정은 느닷없이 ‘저 민정이 아닌데요’ 혹은 “질 아세요?”라고 뻔뻔히 되묻고 남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내가 널 모르냐?’ “황당하다”며 괜한 한숨을 내쉬고 화를 낸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작품은 전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와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에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 그러니까 시간적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을 기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만을 응시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랑의 형태로 드러났는데,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이 주제를 구체적인 인물들의 관계와 대사로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민정의 이른바 ‘낯설게하기’는 지금의 나에 대한 사랑으로(지금은 맞고), 영수와 남자들의 ‘익숙해지기’는 내가 알았던 너에 대한 정보로(그때는 틀리다) 구현한다.

과거를 반영해 현재에 행해져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영수가 그토록 강조하는 반면 민정은 깨버리자고 말하는 이유는 그때뿐이다.

흥미로운 건 영화의 이런 양상들이 홍상수의 제언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의 영화는 여태껏 인간에 대한 관찰 혹은 탐구로 흔히 분류됐지, 메시지로 해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부분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상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봐주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고 관객에게 말을 거는 영화로 느껴진다.

이는 영수의 성장 혹은 변화에서 드러난다.

홍상수 영화 미학의 핵심은 반복과 차이일텐데, 전자들의 인물 중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반성한 뒤 변화하는 인물은 없었다.

하지만 영수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반성한 뒤 변한다.

홍상수 영화에 없던 두 가지, 메시지와 성장은 이 영화를 ‘도약’으로 설명할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동하는 달달함의 원천도 마찬가지다.

홍상수의 영화 속 배우들이 대개 그렇듯 이번 작품에서도 주요 배역을 맡은

김주혁·이유영·김의성·권혜효·유준상 등은 좋은 연기를 보여준다.

김주혁은 마치 홍상수의 이전 작품들에 꾸준히 출연한 배우처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유영은 특유의 말장난 얼굴로 때로는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일침고, 때로는 단순해보이지만 또 때로는 복잡한 여자를 천역덕스럽게 연기한다.

홍상수의 세계를 함께 완성해온 김의성·권혜효·유준상 등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을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탠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어쩔 수 없이 홍상수와 김민희의 스펀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다.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주인공 영수와 민정의 이름은 상수와 민희에서 한글자 씩을 따온 느낌을 준다.

민정과 데이트를 하는 두 남자 ‘재영’(권혜효)과 ‘상원’(유준상)은 영수와 함께 홍상수 자신을 담은 사람들로 보인다.

재영은 나이 많은 남자로 불리고 상원은 영화감독이다(물론 영화감독은 홍상수 영화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직업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두 사람의 스펀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완성됐다.

양현석, 최순실·차은택 광고 감독 연관성 부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세간에 불거진 ‘비선실세’ 최순실·차은택 광고 감독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양 대표는 최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TV 예능 프로그램 ‘K팝스타6 - 더 라스트 찬스’ 제작발표회에서 루머와 관련 “연관성은 0%”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차 감독과 친분을 묻는 질문에 “본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YG 소속인 가수 싸이와 최순실의 조카이자 또 다른 비선 실세로라는 의심을 받는 장시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근원자를 찾으니, 싸이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가수(싸비)가 있더라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또 이날 tvN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나주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쳤다.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공개하겠다”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준수·아이유·신화, 연말 콘서트 매진 행진

김준수 아이유, 그룹 ‘신화’ 등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들이 연말 콘서트 티켓 예매에서 이름값을 입증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가 12월 9~11일 2016 시아 발라드 & 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vol.5 3회 공연이 단숨에 매진됐다. 당초 12월 10, 11일이 틀만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 두 회차가 티켓 오픈 2분 만에 매진, 9일 공연을 추가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김준수의 발라드&뮤지컬 콘서트는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해 왔다.

아이유 역시 12월 3, 4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는 단독콘서트 ‘스물네 겨울: 하나 둘 셋 넷’을 2분 만에 전석 매진시켰다.

신화의 콘서트 티켓도 마찬가지로 전석 매진됐다.

소속사 신화컴퍼니에 따르면 신화가 12월 17,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는 ‘2016 신화 라이브 - 언체이징’은 지난 8일 공식 팬클럽인 신화창조 11기 회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팬클럽 선예매가 10분 만에 매진된 데 이어, 10일 진행된 일반 예매 역시 3분 만에 티켓이 모두 팔려나갔다.

대법원,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이 방송에 출연해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당시 긴급하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수단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